

“같이 가면 동성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탈동성애, 함께 합시다” 행사를 마치고 아이미니스트리 출범을 축하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함께 사랑의 하트를 표하고 있다. © 노형구 기자

탈동성애 출신 박진권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탈동성애 사역 단체 ‘아이미니스트리’ 출범식이 8일 오전 10시부터 교대 더 크로스 처치 아인홀에서 열렸다. 예배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는 박진권 선교사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영적 아버지’ 박호종 더 크로스처치 담임 목사가 참석해 1:24-28을 놓고 설교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시대는 동성애 같은 비 진리를 진리로 대체하는 시대”라며 “성경적 진리를 진리라 말하면 비정상으로 치부 받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반 동성애 운동은 차별한 영적인 ‘싸움’”이라며 “이는 성윤리 가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돔과 고모라, 로마서에는 항상 동성애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며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선교사

“종말이 오면서 성적 타락, 음란이 극도로 치닫게 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마 24장에서 예수는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 질서를 본질적으로 해체시키는 일”이라며 “동성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여자, 남자 기준이 없어지고 변태라고 말하는 모든 일 가령 수간, 소아성애를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의 고유함이 파괴되는 일”이라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도 파괴될 것”이라 그는 역설했다. 하여, 그는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 전쟁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그는 “오직 기도를 많이 쌓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동성애를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예배, 기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동성애 문제를 놓고 박진권 선교사가 끝까지 기도, 예배를 불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국 동성애의 영이 빠져 나갔다”며 “기도, 예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동성애 싸움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

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이자 강력하게 싸워야 할 영적 씨름”이라며 박진권 선교사를 격려했다.

이어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선교사는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흔자 번지 점프하면 어렵지만 같이 뛰면 쉽다”며 “탈 동성애 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부터 필요성을 느끼 탈동성애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탈동성애 상담이 진행되는 중, 동성애가 어느 정도 치유되면 다시 동성애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염안섭 연세수동병원장이 도와주시면서, 탈동성애 상담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이너스트리 모임을 이루기 전 10년 동안 예배, 기도, 말씀,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게 다 더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께서 신앙적으로 양육해 주신 도움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조하면서, 그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 사랑은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너무 쉬운 싸움이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탈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곧바로 권면 및 축사가 이어졌다. 염안섭 연세수동병원원장 겸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에이즈 감염 내과 전문의 겸 아이미니스트리 상담사역을 돋고 있는 그는 “동성애 반대 운동 하는 분들 보면 기도 안하고 사회운동에만 매몰될 것이라 편견이 있다”며 “그러나 이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성애 반대는 성경적 진리”라며 “동성애 반대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내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탈동성애라는 걸 실을 맺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역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 크로스 처치 사모인 문정혜 사모는 “박진권 형제를 옆에서 10년 동안 신앙적으로 양육했다”고 밝혔다. 22년의 사역 기간 중, 그는 “왜 저에게 힘든 애들만 보내주세요”라고 울부짖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다”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돌아서길 기다렸던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권 선교사는 끝까지 예배와 기도로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즈음, ‘사모님, 저 또 넘어 쟁여요’라 말할 때, 솔직히 인간적인 울분이 올라왔었다”며 “그럼에도 예수의 마음을 되새기며, 진권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며 토닥여 줬다”고 전했다. “그러길 몇 번이나 반복 됐다”며 “이러길 수십 번 반복하면서, 계속 토닥여 줬던 그 포옹이 진권에게 안정감

탈동성애 단체 아이미니스트리 출범 예배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가 대표

가치하고 힘든 삶임을 빼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였던 지난 과거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신양적으로 잘 상담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로 조영길 아이엔에스 법률사

무소 대표 변호사, 백현국 국민일보 기자, 한효관 강경한사회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미니스트리를 통해 탈동성애한 A씨의 간증이 있었다. 그는 “나는 외로웠고 숫자가 없어 친구가 없었다”며 “여성스런 성격 때문에 자주 놀립 받았고 자존감이 항상 낮았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컴퓨터 게임에 빠졌으며, 중 2때 음란물을 통해 동성애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선 원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후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형제와 연결돼 상담·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로 조영길 아이엔에스 법률사 무소 대표 변호사, 백현국 국민일보 기자, 한효관 강경한사회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미니스트리를 통해 탈동성애한 A씨의 간증이 있었다. 그는 “나는 외로웠고 숫자가 없어 친구가 없었다”며 “여성스런 성격 때문에 자주 놀립 받았고 자존감이 항상 낮았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컴퓨터 게임에 빠졌으며, 중 2때 음란물을 통해 동성애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선 원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후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형제와 연결돼 상담·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탈동성애 단체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집을 통해 24시간 기도가 흐르는 아이미니스트리가 끌렸다”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탈동성애로 인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절제를 배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 미니스트리 지체들의 영적 보호를 통해 관계를 배우고 사랑받는 걸 배웠다”며 “나아가 주님은 나의 전인적인 회복을 인도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은 따돌림으로 인한 상처를 보듬어 주셨다”며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로 탈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탈동성애라는 죄로 끌없이 넘어질지도라도 오래 참으시고 불들여 주신 주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며 “박진권 선교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결혼과 가족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후 5:17을 인용하며 “이 간증 이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노형구 기자

“칼빈의 종말론은 무엇인가”

한국개혁신학회 134차 정기학술발표회 총신대 김대웅 박사 발제

한국개혁신학회 134차 정기학술발표회가 방배동 백석대 대학원 목양동 403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웅 박사(총신대)가 ‘존 칼빈의 다니엘서 해석 및 종말신학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다니엘서 2장, 7장에 나온 네 신상을 두고, “루터와 칼빈 모두 앗수르나 바벨론, 예대와 바사, 알렉산더와 헬라 왕국, 로마 왕국으로 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루터는 로마 왕국을 당시 계르만 족의 신성로마제국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는 인류 최후의 제국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제국을 심판하실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칼빈은 복음이 널리 선포되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제국은 이미 멀망됐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칼빈은 복음의 가르침을 풍성히 합유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성령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루터는 로마 왕국을 당시 계르만 족의 신성로마제국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아직

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강림하셨을 때 세상은 여전히 격동 속에 있었던 점은 세상의 캉신이 외형적 상태로의 극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의 초기 이후에도, 여전히 마귀와 불경의 외형화의 계속됨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완성 일뿐이지, 불완전하다는 건 아니”라며 “구원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며 바로 교회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통치가 지상에 실현함으로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본 칼빈의 해석을 전했다.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속성은 그의 봄인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2장에는 뜨인 돌에 의해

신상 파괴 장면이 나온다. 이를 놓고, 그는 “뜨인 돌인 그리스도로 강림으로 네 제국이 다 파괴됐음에도, 어찌하여 거대한 제국들은 여전히 질문이 칼빈에게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칼빈은 폭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혁존 안에 연결돼, 동일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네 제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멸망했다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 제국들 간 흥망 성쇠를 통해 주관하셨다”며 “이러한 과거의 사실이 미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칼빈의 시각을 재차 설명했다. 하여, 그는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에 의해

예언한 신상 파괴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로마 제국 이후의 미래 역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돼, 제국의 폐관은 결국 소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칼빈은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음 전파가 시작되면서부터 수립됐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외형으로 완전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씨여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제국들을 소멸시키실 것을 예언했다”며 “칼빈은 다니엘서 예언이 예수가 강림한 시기가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가 여전해도,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폐관이 성취됐으며, 제국의 소멸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반복될 것을 보았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

는 “비록 교회는 대적자 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 전파를 통한 성도의 세상 통치는 이미 시작됐고 영원히 완전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 전파는, 주전 6세기 말 고레스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로마의 성전 파괴되던 주후 70년에 완전히 성취됐다”며 “칼빈은 당시 로마 신성제국의 통치가 계속될지도,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성됐음을 강하게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로마신성제국의 존속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루터의 발언과 상충되는 칼빈의 해석인 것이다.

노형구 기자

“법원이 목사 자격 정하는 것 아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옹호 논평 발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최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고

등법원이 해당 교단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교단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엄연히 목사로써,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

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 말하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에 심대한 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법원

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그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논평4면 / 박용국 기자

“정파적 이용만 됐던 ‘자유민주주의’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것 아쉬워”

대화문화아카데미,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주제로 대화모임



(왼쪽부터) 한신대 윤풍중 철학과 교수, 포함공대 이진욱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로 대화모임이 열렸다. ⓒ 노형구 기자

평창동에 위치한 대화문화아카데미는 7일 오후 2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한신대 철학과 윤풍중 교수,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가 참여해 발제를 했다.

먼저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배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서양 중심주의이며, 19세기 말부터 학습된 개념”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특수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 민주주의 개념은 2차 대전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가 자행한 유태인 학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라며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낯설고, 하여 3.1운동 이후 100동안 우리만의 민족적인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목적은 평화, 인권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자유민주주의 논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에서 비롯됐다”며 논의의 첫말을 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는 역사적으로 유신헌법안에 사용됐다”며 “그래서 우리 느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리낌이 자동반사적으로 일어나고, 매우 정파적 논쟁으로 흘러왔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평등한 선거, 견제 받는 권력,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중대한 가치로 보지만, 여전히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변혁적 가치로 남아있을 정

도”라고 꼬집었다.

이유로 그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간 한국 반공주의의 내용적 측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기준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정치사의 전개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악평하는 경향으로 흘러갔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악평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정치사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면 그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발전 행보를 주목했다. 그는 “48년 대한민국 초, 중, 고 공립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하기 시작했지만, 이론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4.19 혁명 이었다”며 “이는 국민에 의해 독재적 통치자가 민중에 의해 물러나게 되는 첫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그는 “로크적 저항 개념이 내재화 된 형태”라며 “국민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개념이 4.19 혁명을 통해 처음 구현된 선행”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1960년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의 첫 출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 정부 및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반면 그는 “현재 세왕적 대통령제 등 견제 받지 못한 권력 형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성숙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 한다”며 “정부 중심의 행정국가, 정부 주도하에 강한 규제는 또 다른 실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보안법이 과연 생각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20대 총선의 50.9%가 사표(死票)”라며 “여전히 국회의원이 정치적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정치 현실”을 꼬집었다.

다면 그는 “형식적으로는 권력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이뤄지고 있다”며 “동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저항의식은 한국 민주 사회 속에서 일정하게 내재화 돼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 곳곳, 삶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논쟁을 정파적, 이념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체제 안에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는 2차 대전 같은 서구적 경험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한 건 아니”라며 “때문에 4.19 혁명, 87 민주항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내재화 하고 있다면, 정파성을 배제한 자유민주주의의 논의를 적극 전진시켜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역설했다.

곧바로 한신대 윤풍중 교수도 발제했다. 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기득보수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담론”이라며 “담론은 권력과 불가분이기에,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형태로 재생산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기득권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를 왜곡한 정치 실험은 바로 냉전 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를 자기 정권의 방어 논리로 사용했던 경향이 한국 시민사회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냉전 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의 행동 양태를 보이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파괴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기득권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냉전 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를 내세웠기에, 한국의 진보는 ‘냉전 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로 간주해왔거나 또는

오독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 진보는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극단적 예로 치우친 점도 있다”며 “정통 마르크스주의, 운동권의 NL주체사상은 한국 진보의 양극단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유로, 그는 “애당초 60-80년대 진보 운동은 주체사상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또는 대안으로 보는 유산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민자본주의적 감수성으로는 최저 출산율, 최악의 자살율, 노인빈곤 등 한국 경제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재구성,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정이라 선언하고 있다”며 “공화정의 실제 내용은 자유주의, 민주적 요소 약 날개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도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유신헌법에 들어가서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오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득 보수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다는 점에 앞서 두 분의 얘기에 공감 한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정파적으로 이용됐지, 스스로가 가진 개념적 이해를 충만히 한 후, 자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리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외피만

가쳤던 점,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민주주의 정도로만 이해한 협소한 시각도 문제였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었다”고 전했다.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0월 16일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 자유주의자·민주주의자 연간 총회(CALD)’에서 ‘아시아 외기의 정치적 차원’에 관한 토론 결과를 인용했다. 즉 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외환위기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경제성장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남용한 결과”라며 “나아가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 정도로 축소시키고 민주주의 다른 측면은 전적으로 배제함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국민 통치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독일 연방헌법에서 차용한 것”이라며 “본래 의미는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질서’의 축약 어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독일연방헌법판소의 독일 기본법 해석을 인용해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법치국가를 핵심구성요소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객관적 구성조건”임을 전했다. 이에 그는 “독일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란 여러 정치적 입장을 담아내고 창출하고 또 자유롭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정의적 정치 생태계를 의미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www.kogas.or.kr

바르게 딜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1-31)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 대큐멘터리에서 한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강연의 끝 부분에 가서 그 과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 지구가 더 이상 들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 자연계는 오래 전부터 명백한 징조들을 수도 없이 보여 주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인류는 지구의 멸망을 미숙하시기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경고해 주었는데.’라고 후회할 것이다.” 그 과학자로서는 점점 더 빙도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태풍과 쓰나미,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와 빙붕들만 보아도 지구의 온난화는 더 없이 명백한데도, 정작 강대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징조와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최소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와 역사의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은 오직 ‘주의 임하신’과 함께 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대리석과 값비싼 장식들로 꾸며진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 화려한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김립산”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한 “주의 임하신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날이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들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셨습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담임목사

이 시간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명백한 ‘말세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고해 보고자 합니다.

1. ‘미혹하는 이단의 등장’이 세상 끝이 가까워질 때 나타날 대표적 징조입니다.

4절부터 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은 나에게 이롭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예수님의 제일성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거나 결코 빠져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즉 말세가 가까움을 보여 줄 ‘징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언제 말세가 되든지 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을 미혹하는 일들은 우선 ‘가짜 메시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즉 자신이 바로 ‘재림한 메시야’라고 주장하며 신자들을 미혹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은 특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터질 때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참된 신자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난리와 난리’가 점점 더 많이,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은 그런 ‘가짜 메시야’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일”은 원래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일 뿐이며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 새 없고,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지진” 등의 재해가 연이어 벌어지겠지만, 그것들은 그저 말세가 가까워질 때 필연적

으로 벌어질 “재난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감람나무’ 혹은 ‘동방의 계명상’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이 바로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 곳곳에 등장하고 있으며 끝내 그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자살극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항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용하여 그 추종자들을 위협하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이 곧 망한다’는 믿은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미혹하는 데에는 가장 효력이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밖에도 이런 ‘가짜 재림 예수’의 수록 특히 ‘민족 간의 내전, 나라 간의 전쟁’이나 ‘지진, 기근, 온역 등의 천재지변’ 따위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건들을 자기네가 주장하는 ‘재림 일정 시간표’에 얹지도 뜯어 맞추어 넣어 그럴싸하게 꾸미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해야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결코 진짜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동반하고 세상 어느 사람에게나 한눈에 재림주 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구차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무 날 아무 시에 세상 끝이 온다’라는 따위의 예언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36절)고 천명하신 사실을 자기는 안다고 하는 것이라니, 재림주는 커녕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단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혼들리는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종말의 날짜와 직결시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일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또한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세상 끝이란 공포스러운 멀망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새 생명이 시작될 날이니 그런 가짜 메시아들의 미혹이나 온갖 천재지변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신자들의 “불법이 성하게” 되면서 자연히 “많은 사람의 사람이 죽는” 즉 기독신자들 내부에서 큰 갈등과 시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밖에는 ‘배교자’들이 드러나는 때에서도 하지만 동시에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신자는 스테판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만 마지막 순간까지 불하고 삽니다.

그런 ‘환난 시대의 순교자’들과 ‘평화 시대의 순교자’들에 의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순간 ‘땅 끝까지 이르는 전도’가 완성되면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사탄은 세상 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날이 다 되어 가는 줄 잘 아는 까닭에 더욱 발악을 하면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펑박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참된 개혁주의 기독신양은 천주교로부터는 계속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자유주의자들로부터는 무식하다는 비판을 더욱 맹렬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신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혈육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들을 것이고, 회사의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윙파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된 신자들에 대한 밖에 가리킵니다.

사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단의 미혹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들은 ‘회당’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채찍’을 맞기도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는 그처럼 육체적 고통의 극한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인 동시에 또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정신적 고통의 극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밖에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로마의 관원 등 세속권력으로부터 받기도 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같은 기독교인으로부터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강력한 혼합종교 세력을 형성하면서 참된 신앙을 사수하고자 하는 소수의 교회를 사방 팔방으로 에워싸고 펑박해 올 것이며,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서로 잡아주는” 배교가 오히려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한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자와 교회가 안팎으로 박해를 당하고 불신사회에 절대다수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당신의 재림 이전에 반드시 벌어질 징조라고 미리 일리주시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가 당하는 박해를 오히려 참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교적인 신앙자들을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처럼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성도에게 약속된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어질 사탄의 밖에는 참된 복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연합공세 앞에도 결코 굴거나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자신의 신앙을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각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도 세상 끝날을 예비하라고 경고해 주는 징조입니다.

15절 이후 22절에 “15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멀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16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 가지 말며 18발에 있는 자는 걸어 옮을 가지려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19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그 날들을 감리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에 “멀망의 가증한 것” 즉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멀망하게 될 날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 중 일부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처절한 항쟁을 벌였지만 결국 로마 군대의 강력한 진압에 의하여 전멸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하는 바에 의하

GODIVA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께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 www.godiva.kr

설교·논평

면 당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사망자가 백십만 명, 포로로 잡혀 간 자가 구만칠 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남긴 숫자는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극적인 종말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정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눅 21:22). 즉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일부 유대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지자 뒤로 돌이키자 말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적군이 닥칠 때 본능적인 반응은 보다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성 안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다가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성 밖으로 피신하라고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을 탈출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회를 면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 마치 세상 종말과 직결되는 “대환난” 정도로 보일만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당하고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죽

음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종말이 닥친 것처럼 여겨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의 날이었지 결코 온 세상 전체의 끝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대재앙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대심판이 오기도 전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즉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역사를 통해 그런 날의 숫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로 자기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세상 종말과 직결시키려는 시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 애발로 세상 종말이 임박한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했던 로마제국이 암스러운 이민족의 침략에 아파없이 무너졌을 때, 서기 1000년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며 인구 삼분의 일이나 되는 생명을 빼앗아 갔을 때,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온 세상을 스스로 한꺼번에 자멸시킬 수도 있는 위기로 몰아갔을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기 말에 지나갔던 ‘1999년 7월’ 중에 태양계 행성들의 특이한 직렬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던 소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그 달이 오기 직전

까지 숱한 신봉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도 예수님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주는 ‘징조’이지, 결코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므로 기독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으로 온갖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생기게 하시는 것을 두고서 자기 시대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증거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당장 종말이 닥쳐 온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각 시대마다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오직 ‘최후 심판의 날’을 예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적인 심판과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당장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결코 속단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만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재림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림이 가까워진 징조’가 아니라 실제로 ‘재림이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온갖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차츰차츰 널리 알려

질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될 일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는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천사들이 동원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와 함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등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알리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서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的 응위를 받으시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재림주의의 위엄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때까지 ‘세상 끝’은 여전히 ‘가까울’ 뿐이지 아직 ‘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세지말의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온갖 재앙 중에도 그 날들을 감하면서 택자를 보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때’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슨 징

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은 ‘재림 직전’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예언을 예수님이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부터가 이런 징조들을 그들 생전에 하나도 빼짐없이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이단, 신자를 박해하는 대적,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재난들 -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시대, 어느 신자나 다른 똑같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므로 진짜 중요한 점은 세상 끝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신자가 자기 믿음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일 년 전, 혹은 한 달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한 가지 특별한 징兆를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징兆 한 가지만 예의주시하면서 그 징兆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헤아리지고 방심하게 될 것이라 뺏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자라면 모두가 겪게 될 일반적인 징조들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시기가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 오직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뿐입니다.

실사 예수님이 앞으로 흰 년 후로

확정되어 있다순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대에는 그 천 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전에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못 해 놓으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는 그 날이 천 년 아니라 만 년이 남아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므로 예수님이 재림이 서기 몇 천 년에 되든지 그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내일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니’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르니’ 지금이 순간에도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많은 천재지변의 종말 징조들 앞에서도 ‘우려워 말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종말 징조들을 당하게 될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므로 종말은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 재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더욱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오도하고 미혹하는 이단들, 우리의 지키고 있는 것을 욕하고 미워하는 박해자들, 우리의 잡은 것을 흔드는 온갖 환난과 재난 중에서도 ‘세상 끝’이 오기 이전에 꼭 ‘이란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오직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그 ‘주의 임하심’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교단과 노회에서는 그를 목사로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의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신학교로 다시 신학교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 이미 입명된 사람이 법률을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하여, 그를 ‘법대생’으로 부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해당 교단에서 모두 인정한 것을, 법원이 세세한 내용으로 ‘목사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압축이다.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인가?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이 요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 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으로’ 표현하여 법원도 목사임을 인정한다.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이미 목사의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찌 ‘신학생’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탄압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이 요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 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으로’ 표현하여 법원도 목사임을 인정한다.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이미 목사의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찌 ‘신학생’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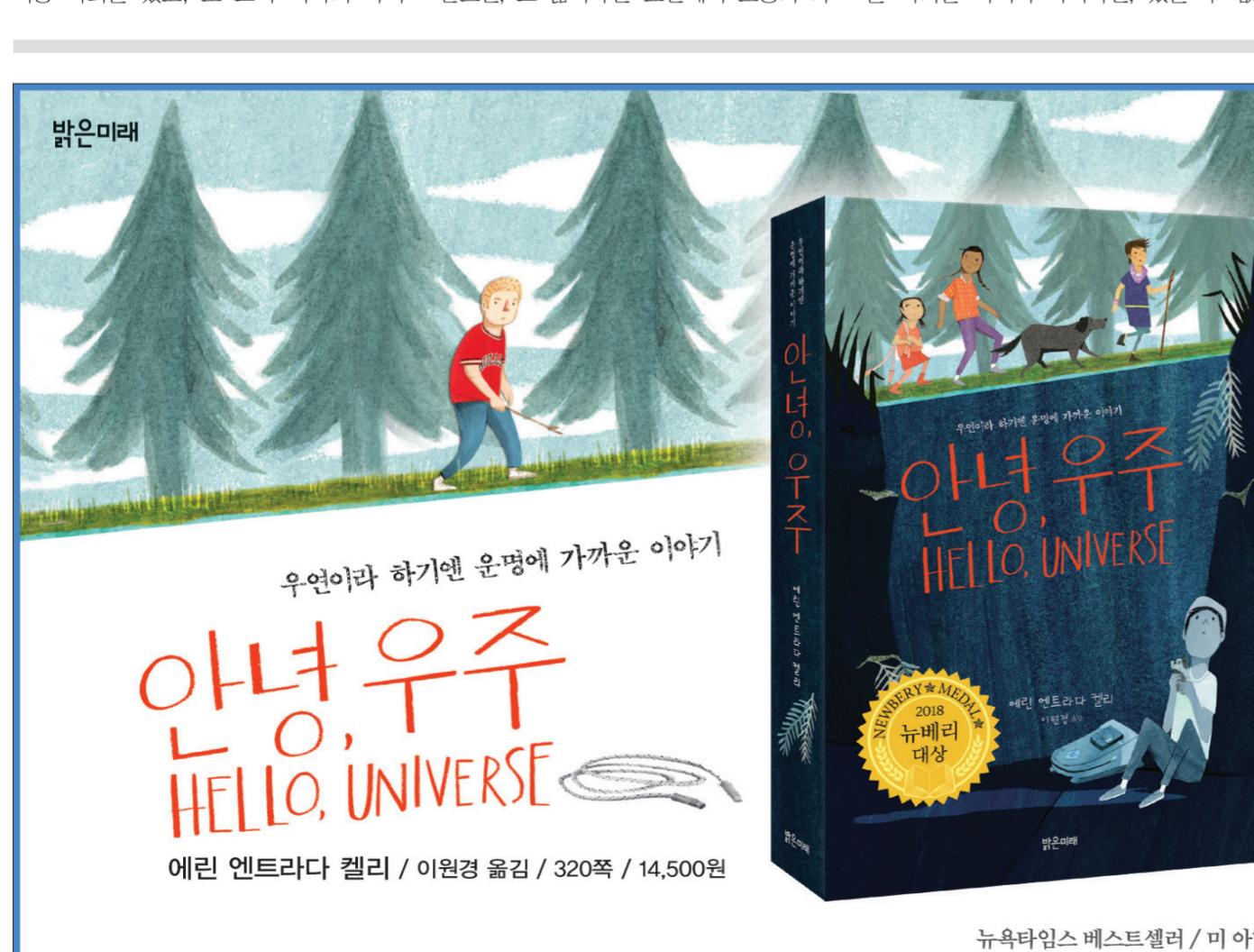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18 뉴베리 대상 수상작!

출간 즉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이야기!
못된 골목대장 ‘쳇’이 소심한 ‘비길’에게 끔직한 장난을 치던 그날,
네 아이의 우주가 서로 얹히기 시작했다!

네 아이가 겪은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미 아마존 베스트셀러 / 뉴욕, 시카고, LA 공공도서관 2017년 최고의 책 / 워싱턴포스트 2017년 최고의 책